

실천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현대 인식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종철*

논문 초록

세계관이란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논리적 관련이 있어 보이는 중요한 신념들의 체계이며,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파악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논리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참된' 신념들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재주의가 요구하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ccess)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인지 기관을 통해 참된 신념이 형성되어야 하고(신빙론), 그 신념이 실천을 통해 확증되어야 한다(실천적 접근, executive access).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지식에 기초해서 다시 믿고 또 이 신념에 기해 실천하는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신념과 지식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지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고, 참된 신념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믿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으로 계속되는 순환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핵심 주제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신념

* 라브리선교회 간사, koalamf@hanmail.net

- I. 서론
- II.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
- III.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1: 어떻게 작동하는가?
- IV.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2: 무엇이 필요한가?
- V. 결론

I. 서론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90년대 중반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가 곧 시들해졌는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도전적인 것은 세계관 공부와 운동은 있었어도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2002년 상반기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과 상황에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들을 실었는데 이들의 문제의식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의 삶과 한국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원인 분석과 대안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전제는 동일하였는데, “실천(순종, 삶) 없이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1 가) 어떤 이는 화란 개혁주의 세계관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였고(이원석, 2002: 53-63), 나) 다른 이는 성경은 서사(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명제화해서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이야기의 역동성을 박제화하는 것이고 이야기의 풍성함을 두어 줄의 교훈으로 맞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관의 서사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데 머무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경의 서사성을 고려하여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양희송, 2002: 57-63). 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파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천의 부재는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한다(정정훈, 2002: 64-77).

나는 이들의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원인 분석과 대안에는 부분적으로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들의 암묵적인 전제인 “실천 없이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과 삶의 관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으나 실천(삶의 변화)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2:26의 “행함이 없는 믿음(faith)은 죽은 것”이라든지 마태복음 5:13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의 구절들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신앙이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후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견상 신앙이 있고 소금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앙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설을 설명할 것인가?

나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I: 어떻게 작동되는가?’에서 이 역설을 현대 인식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뒤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II: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전제로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II.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에 앞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의 말뜻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나는 소

위 ‘지적 구조(noetic structure)’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세계관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의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제라는 말의 뜻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 분명하지 않으며, 세계관을 ‘세계’라는 말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마치 존재론적인 신념이 세계관의 주요 내용인 듯한 오해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세계관과 실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적 구조란 무엇인가?

1. 지적 구조(noetic structure)

(1) 지적 구조는 신념(belief)들의 합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들을 접할 때, 어떤 정보들은 우리의 인지 기관을 촉발(trigger)시켜 신념들을 형성하게 한다(Wolterstorff, 1983: 149). 다시 말하면,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지 기관은 그 정보들을 명제로 바꾸어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인지된 명제를 우리는 내적으로 승인하기도 하고

2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는 세계관을 “이 세계의 근본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혹은 가정)들이다”라고 하였고(Sire, 1985: 19), 프로이드는 ‘우리 존재의 모든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풀기 위해 가장 지배적인 가정(hypothesis)에 기초하여 세운 지적인 구조’라고 하였으며, 성인경 복사는 “세계관이란 한 개인이 세계에 대해 갖는 종합적인 신념 체계이며...인생의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논리적인 대답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철학이다”라고 하였다(성인경, 2004: 126-133). 그 외에도 키에르케고르는 ‘공극적인 신념들의 집합’이라고 하였고, 윌터스는 ‘제반 사물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신념의 포괄적인 체계’라고 하였다(양승훈, 1988: 3-4).

3 전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기초적인 신념 내지는 공리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념 중에서 다른 신념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념, 즉 규제 신념(control belief)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쉘퍼는 후자에 가까운 의미로 반틸은 전자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Rueggsegger, 1986: 34).

거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승인할 때 비로소 신념이 생긴다(김기현, 1998: 33-36). 따라서 신념은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승인한 명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각자는 매일 수많은 신념들을 새로 형성하고 교체하고 소멸시키며,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수의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의 합이 바로 지적구조이다(Plantinga, 1983: 52). 그렇다면 지적 구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 또한 지적 구조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 구조는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2) 지적 구조의 특징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이외에 몇 가지 특징들을 더 가지고 있는데(Nash, 1988: 21-24), ① 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념들은 지금 의식적인 것들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⁴ ② 우리가 믿는 신념들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관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 신념들도 있을 것이며, 논리적인 연관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관련된 신념들도 있을 것이다. ③ 어떤 신념들은 그 중요성이 커서 만일 그러한 신념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적 구조 속에 있는 나머지 신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신념들은 그 중요성이 미미해서 그 신념을 더 이상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그 지적 구조 속에 있는 다른 신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④ 우리의 지적 구조를 건물로 본다면, 건물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신념⁵이 있을 것이

4 활성화된(activated), 비활성화된(unactivated) 신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김기현, 1998: 34).

5 이러한 신념들은 다른 신념들로부터 추론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기초적이다.

고 그 기초를 딛고 서있는 비기초적인 신념들도 있을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신념들 중에는 참인 것들 뿐 아니라 거짓인 것들도 있을 것이다⁶. 그렇다면 이런 지적 구조와 세계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지적 구조와 세계관의 개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계관이란 모든 사람들의 지적 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보이는 ‘중요한 신념들의 합’이다.⁷ 따라서 우리는 세계관의 개념 표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세계관의 개념 표지들

세계관은 지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②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 중에는 무의식적인 것도 있고 의식적인 것도 있으며, ③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들 중에는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이 있다는 점을

6 <표1> 지적 구조의 특징

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들	중요한 신념들	기초적인 신념들	참된 신념들
무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무관한 신념들	사소한 신념들	비기초적인 신념들	거짓 신념들

7 우리는 세계관에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비이론적(nontheoretical)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것들 중에는 개인의 역사를 통해 신앙화된 정치적, 인종적, 성적인 선입관 등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제(諸)신념들과 전혀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차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은 세계관에 의해 자신의 편견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편견이 세계관과 지적 구조 전체에 깊은 영향을 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이벨트도 이론적인 사고가 결코 자율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고 존재의 종교적 뿌리 내지 마음(heart)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Nash, 1999: 21).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적 구조와는 달리, ④ 세계관은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신념들의 체계(system)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우리의 분절된 활동을 세계 전체와 연관시켜 통일적인 의미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는 알스턴(W. Alston)의 말이다(Nash, 1988: 24-25), 앞에서 인용한 세계관에 관한 프로이드와 월터스(Wolters)의 정의는 이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관을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신념들이라고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보이는’ 신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신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는 양립할 수 없는 신념들을 종종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표지는 ⑤ 세계관은 중요한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중요한 신념이란 그 신념이 없다면 지적 구조 내에서 다른 신념들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념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신념들이란 우리의 실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가치를 지니는 신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신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중요한 신념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2) ‘중요한 신념’ 의 개념

세계관에 관해 다양한 정의가 있었듯이 중요한 신념들을 어떠한 방식으

⁸ <표2> 세계관의 개념 표지들

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보이는 신념들	중요한 신념들	기초적인 신념들	참된 신념들
부의식적인 신념들				거짓 신념들

로 파악할 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①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라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신념들을 중요한 신념들로 보는 월터스/도이벨트의 견해가 있고(Wolters, 1992: 22-24), ② 내쉬(Ronald Nash)처럼 철학의 범주에 따라 신학, 인식론, 형이상학, 인간학, 윤리학에 관한 신념들을 중요한 신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Nash, 1988: 14-18)⁹, ③ 마지막으로 월쉬(Walsh)와 미들튼(Middleton)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악)인가? 그 해결책(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념들을 중요한 신념들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Middleton, 1995: 11-12). 나는 이 중 세 번째 입장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하는 용어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철학의 일반적인 범주인 인간학, 형이상학,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 신학을 다룰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적인 범주인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관을 ‘중요한’ 신념들의 합이라고 할 경우, 지적 구조는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 세계관으로서의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등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세계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

3.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세계관이란 우리의 지적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신념들 중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이건 거짓이건,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간에 논리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는 중요한 신념들의 체계라고 했는데 (Nash,

⁹ 제임스 사이어는 여기에 내세, 윤리에 관한 신념들을 추가하고 있다(Sire,1990: 30-31)

1988: 24-25),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닌 진리라고 보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할 경우, 기독교 세계관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¹⁰이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간에 논리적인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참된 신념들의 체계’이다.

III.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1: 어떻게 작동되는가?

앞에서와 같이 세계관을 정의할 때 세계관은 여러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념과 삶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곧 세계관과 삶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과 삶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신념과 지식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신념과 지식 그리고 삶의 세 가지 관계를 살필 때, 즉 지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할 때 비로소 신념과 삶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신념과 지식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개념을 매개 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렇게 신념, 삶 그리고 지식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드러날 것이다.

쉐퍼는 지식은 신념에 선행한다고 하였고(Schaeffer, 1968: 142), 어거스틴은 믿어야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본혜퍼는 일정한 지식을 얻기 위

10 <표3>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표지

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들	중요한 신념들	기초적인 신념들	참된 신념들
무의식적인 신념들			비기초적인 신념들	

해서는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Bonhoeffer, 1963: 83ff), 이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 역시 지식과 신념 사이에 삶이라는 매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나는 현대 인식론의 논의를 비판 혹은 의존하면서 신념과 삶과 지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신념과 지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 신념과 지식과의 관계

(1) 지식, 정당화된 참 신념

플라톤은 존재론적으로 이데아 세계와 개별자의 세계를 구별하고 인식론적으로 후자는 이성이나 직관이라는 수단에 의해 인식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지식(knowledge)이라고 부르고, 전자는 감각이라는 수단에 의해 인식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의견(opinion)이라고 부르면서, 의견에는 개별자 자체의 인식인 신념(belief)이 있고 그 개별자의 이미지나 그림자의 인식인 추측(conjecture)이 있다고 하여 신념과 지식의 인식론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Nash, 1999: 62-76).

이러한 플라톤의 구별을 본받아 현대 인식론자들 역시 지식(眞, knowledge)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당화된 참된 신념(justified true belief)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식과 신념을 차별화하고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지식의 최소한의 조건인 ‘정당화된 참된 신념’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내가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정각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신념이 지식이 되려면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을 한 때가 오후 12시 정각이어야 한다. 또한 정당화된 신념이어야 하므로 제대로 작동되는 시계를 보았거

나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말해 주는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어야 한다. 만일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정각이다”라는 신념이 참되다 할지라도, 추측으로 그렇게 믿었거나 고장 난 시계를 보고 우연히 시간을 맞추었다면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당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화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 인식 정당화 이론

인식에 있어 정당화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념에 합리성을 담보시키기 위함이다.¹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념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즉 어떤 경우에 인식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현대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인식 정당화 이론이다. 인식 정당화 이론은 크게 3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증거주의(evidentialism), 정합론(coherentism), 그리고 신빙론(reliabilism)이 그것이다.

11 모더니즘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합리성이었다. 따라서 어떤 신념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니체)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비판자/적대자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비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허위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들로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비합리적이라고 정치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종교가 소원 성취(wish fulfillment)라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위협을 주자(병, 죽음, 재앙) 이를 보고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한, 즉 완벽한 아버지를 하늘에 투사해 놓고 이를 믿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유아적이고 일종의 정신이상의 결과이므로, 그 신념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마르크스 역시 종교란 왜곡된 세계의식에서 나온다고 보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회질서가 사람들에게 인지 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신에 대한 신념이 생겨났기에, 신의 존재에 대한 신념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Plantinga, 2000: 135-152).

① 증거주의

증거주의는 어떤 신념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 받을 것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충분한 증거 없이 믿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충분한 증거 없이 믿으면 죄다”라는 W K 클리포드의 말은 증거주의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lark, 1998: 146-153). 그러나 증거주의는 증거의 무한 후퇴(infinite regress)를 막을 길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일정한 명제에 대한 신념으로 주어지므로¹², 그 신념이 증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고 이 증거는 또 다시 다른 증거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증거는 무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후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신념들, 특히 너무나 확실한 신념들은 증거가 필요 없이 바로 정당화되는 기초 신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신념들은 이 기초 신념으로부터 정당하게 지지, 즉 추론되어야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초 신념들(properly basic beliefs)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기초주의(strong foundationalism)는 기초 신념을 자명한(self evident) 신념¹³이나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신념¹⁴(김기현, 1998: 180-186)과 같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신념으로 한정한다.¹⁵ 반면에

12 주의 할 것은 온전한 기초주의에 의한 경우, 증거가 반드시 명제적 상태임을 요하지 않고 비명제적인 경험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3 분석명제, 수학, 기하학, 논리적 공리에 대한 신념으로서,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남자는 총각이다”, “ $1+1=2$ ”, “삼각형의 3각의 합은 180도 이다”, “a는 non a와 같지 않다”와 같은 명제에 대한 신념들을 들 수 있다.

14 어떠한 명제를 믿으면서 동시에 틀리는 것이 불가능한 신념으로서, ‘내가 지금 고통을 느낀다는 신념’, ‘책상 위의 시계가 나에게 붉게 보인다’는 신념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5 따라서 강한 기초주의에 의한 경우 ‘경험적 신념’은 ‘감각에 주어진 것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추론되는 비기초적인 신념이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경험적 신념’을 정당한

온건한 기초주의(modest foundationalism)는 기초 신념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거나 명백한 신념이면 족하고 반박 불가능하거나 오류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한(invincible or in fallible certain) 신념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⁶. 즉 어떤 신념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오류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일응 확실하면 (prima facie certain), 완벽하게 기초 신념으로 받아들일만하다는 것이다⁷.

② 정합론

정합론은 신념들이 상호 잘 짜여져서 연결되어 있을 때 정당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념을 형성한 경우, 그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들과 정합⁸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주의(기초주의)가 우리의 인지 구조를 마치 피라미드처럼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정합론은 마치 뿔뿔처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나무 모두는 상호 의존하여 뿔뿔 전체를 이루는 것이지 어느 통나무 일부가 뿔뿔 전체에서 더 근본적인(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김기현, 1998: 168). 그러나 상호 배타적인 신념의 체계들이 각각 모두 정합적인 구조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신

기초 신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강한 기초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Wood, 1998: 86).

- 16 강한 기초주의의 경우 기초 신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확실성(오류 불가능성)이나 온건한 기초주의의 경우는 직접성(비추론성)이다.
- 17 강한 기초주의와 약한 기초주의는 정당한 기초 신념의 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전자가 정당화 조건으로 인식 주체의 '인지적 집근', 즉 상위 신념(meta level belief)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후자와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 할 것이다.
- 18 논리적 비일관성(logical inconsistency)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합의 표지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념의 합이 서로 논리적인 비일관성은 없지만,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신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리적 비일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표지 이외에 적극적인 표지로 신념들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 관련성이란 신념들이 서로 연역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관계, 즉 논리적 함축 관계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신념들이 서로를 잘 설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Wood, 1998: 116-118).

론과 자연주의는 서로 배타적인 신념의 체계이지만 각각은 모두 정합적인 구조일 수 있는 것이다(Wood, 1998: 118). 따라서 레러(Keith Lehrer)는 어떤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오류를 피하고 진리를 얻을 목적에서 그 신념을 받아 들였을 것 둘째, 그 신념을 대변하기 위한 논증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주의자의 도전에 응수 할 수 있을 것, 즉 소위 정당화 게임에서의 승리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¹⁹(Lehrer, 1990: 219-234).

③ 신빙론

신빙론은 어떤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신빙할 만한(reliable) 방법으로 형성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신빙론은 정당화의 문제를 주관적이고 인식 주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신념의 정당화는 (강한) 기초주의나 정합론처럼 인식 주체의 노력-얼마나 열심히 증거들을 모으고, 얼마나 열심히 새로운 신념이 자신이 가진 다른 신념들과 정합 하는지 확인했는가하는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관이 신빙할 만한 방법으로 작동한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빙론의 발단은 정당화의 요건으로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는 반드시 명제적인 증거여야 한다는 기초주의의 가정이 그릇된 것임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²⁰. 이들은 일정한 경험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근거로서의 일정한 경험과 문제되는 신념과의 관계는 추론이 아니라 심리적인 관계, 즉 경험으로부터 신념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책상 위에 있는 빨간 사과와 경험으로부터 추론 없이 “빨간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라는 신

¹⁹ 레러와는 달리 ‘단순성’을 기준으로 정합적인 여러 체계 중에서 좀더 단순한 체계가 그 체계 내의 신념들에 대해 더 나은 정당화를 제공하는 체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단순성’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는 ‘단순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²⁰ 그런 의미에서 리드(Thomas Reid)는 온건한 기초주의자이지만 신빙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Wood, 1998: 161).

념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빨간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는 신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빙주의자들은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일정한 종류의 경험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정한 신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일정한 신념이 정당화(내지는 warrant)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을 산출하는 방법이 신빙할 만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빙’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플랜팅가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신념이 warrant²¹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신념을 산출하는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cognitive faculties working properly)²²되어야 한다. 둘째, 인지 기관이 작동될 때의 환경이 적합한 상태(in the right sort of environment)²³여야 한다. 셋째, 그 인지 기관이 참된 신념을 성공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according to a design plan successfully aimed at truth²⁴) 작동 되어야 한다(Plantinga, 2000: 153-161).

21 warrant는 어떤 신념이 ‘긍정적인 인식론적 상태(positive epistemic status)’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랜팅가의 용어로서, 어떤 신념이 참이고 충분히 warrant된 경우 지식이 된다(Wood, 1998: 142).

22 어떤 사람이 색맹이어서 책상 위의 빨간 사과를 보고도 “회색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라는 신념을 형성했거나, 술 취한 사람이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보고서 “마당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라는 신념을 형성한 경우,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념은 warrant되었다고 볼 수 없다.

23 시계가 우연히 12시 정각에 죽었고, 지금 시각이 정확히 12시인 경우, 나의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해서 “지금 시간은 12시다”라는 신념을 형성했다라도 그 신념은 warrant될 수 없다. 적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24 플랜팅가는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진리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살인적이 추위의 경우, 그 추위대로 느끼면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인지 기관은 덜 춥게 느끼게 하면서 보호하는데, 이렇게 덜 춥게 느끼게 하는 것도 그 추위를 감각하는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지만 참된 신념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작동된 것은 아니다.

(3) 신빙론의 타당성과 한계

① 신빙론의 타당성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앞의 강한 기초주의와 정합론은 몇 가지 점에서 받아들여기가 힘든데, 우선 강한 기초주의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 대부분이 정당한 기초 신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설정한 협소한 기초 신념으로부터 추론되기도 쉽지 않아 인식 정당성을 얻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²⁵. 그러나 강한 기초주의와 정합론, 특히 레러 식의 정합론을 인정하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론들이 정당화 조건으로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cognitive access)’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재주의(internalism)라고 하는데, 내재주의자들 가운데는 이 인지적 접근의 정도를 인식 주체가 문제가 되는 신념의 근거와 어떻게 그 근거가 신념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지만²⁶, 어떤 식으로든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을 정당화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무한 후퇴의 굴레²⁷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구

²⁵ 이외에도 강한 기초주의에 의한 경우 정당한 기초 신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상식에 반한다는 것과 함께,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플랜팅가는 ‘자명한 신념과 감각에 주어졌던 것에 대한 신념만이 정당한 기초 신념이다’라는 신념은 과연 자명한 신념인가? 감각에 주어졌던 것에 대한 신념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 신념은 자명한 신념도 감각에 주어졌던 것에 대한 신념도 아니므로 정당한 기초 신념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기초 신념에 의해 추론 될 수 있는 신념도 아니므로, ‘자명한 신념과 감각에 주어졌던 것에 대한 신념만이 정당한 기초 신념이다’라는 신념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Plantinga, 1883: 59-63).

²⁶ 레러 역시 어떠한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을 대변하기 위한 논증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주의자의 도전에 응수할 수 있을 것, 소위 정당화 게임에서의 승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내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성하는 신념들의 성격상, 평신도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신학자나 종교 철학조차도 인지적 접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Alston, 1993: 22).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념들을 비합리적으로 형성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신빙론에 의할 경우 사정은 달라지는데, 인식 주체가 형성한 신념은 인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여 형성된 신념이면 옳하고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재주의와 대비해서 외재주의(externalism)라고 하는데, 외재주의에 의할 경우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회자의 권위, 혹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참인 중요한 신념을 형성한 경우²⁸라도, 신빙할 만한 방법으로 형성했다면²⁹, 합리적인 신념 형성이고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Alston, 1993: 22). 따라서 이러한 외재주의 내지 신빙론에 의할 경우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지기관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그 신념들을 지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그 근거가 문제가 되는 신념을 지지하는지 모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일 수 없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② 신빙론의 한계

사실 우리가 내재주의, 특히 강한 기초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27 예를 들어 신념 P에 대한 증거 E가 있는 경우, 신념 P가 정당하기 위해서 인식주체는 E가 주어졌을 때 P가 참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종류의 내용을 지닌 상위 신념(meta level belief) H를 가져야 하고, H가 다시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H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 E'가 필요하며 별도의 상위 신념인 H'도 필요하다. 그런데 H'는 정당화된 신념이어야 하므로, 또 다른 증거 E''가 필요하며 또 다른 상위 신념인 H''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기현, 1998: 122).

28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참된 신념들을 형성한다.

29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단순히 인지적 접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재주의가 암묵적으로 인간을 지층족적인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즉 인식 주체가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엄격한 감리(監理)를 통해 지적 구조라는 건물을 완벽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신빙론, 특히 플랜팅가 주장하는 신빙론에 호의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간을 의존적이고 타락한 존재로 보고, 인지 작용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려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내재주의는 신빙론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식 주체의 책임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내재주의자를 좋게 그려보자면, 각자의 지적인 영역에서 참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인 것이다. 내재주의와 신빙론의 대립은 마치 윤리학에서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이론들과 비슷하다. 선한 동기 내지는 도덕적인 의무감으로부터 나온 행동만이 윤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내재주의를 닮아 있으며, 선한 결과를 야기한 행동만이 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외재주의(신빙론)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적 행동의 본질에 관한 두 주장 가운데 우리가 쉽사리 어느 한 입장만이 옳다고 하기 힘들다. 선한 결과만큼이나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와 선한 동기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식론에도 그대로 타당한데, 인식론적인 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주체의 성실함과 책임의식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빙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내재주의의 장점인

³⁰ 어느 의미에서 내재주의가 warrant 내지 정당화(justification)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신빙론은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인식 주체의 책임감과 성실함에 대한 강조를 지켜낼 것인가?

내재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책임과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cognitive access)’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합리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연 신학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가혹하고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식 주체에게 ‘실천적인 접근(executive access)’을 요구하는 것, 즉 인식 주체가 문제가 되는 신념이 참임을 실천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내재주의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신빙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신빙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실천을 통해 그 신념이 참임으로 보이는 ‘실천적인 접근’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정당화 조건으로 ‘실천적인 접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지적 접근’의 요구를 물리친 성과를 수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삶과 지식 사이에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2. 신념과 삶과 지식과의 관계

(1) 일반론

신념과 지식은 삶에 영향을 준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여겨온 실험과 관찰 역시 이론 의존적이고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의존적³¹이라는 토마스 쿤(Kuhn)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지식과

31 그 신념이 중요한 신념일수록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월터스토프는 우리가 중요한 신념들이라고 부른 것을 규제 신념들(control beliefs)이라고 하면서, 이 규제신념이 다른 자료 신념들(data beliefs), 즉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소한 신념들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Wolterstorff, 1984: 15-20).

신님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덕 인식론(virtue epistemology)은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바른 도덕적 성품을 쌓는 것은 인식론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의 함양은 실천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천이 우리의 도덕적 성품에 영향을 주고 그 도덕적 성품이 다시 우리의 인식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신념과 지식 그리고 삶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Wood, 1998: 33-53). 그러나 신념과 삶과 지식 사이에는 이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신념과 순종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인식과 윤리적인 실천의 관계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17(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2:3(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 야고보서 2:22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과 삶과 지식 사이의 밀접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 실천을 통한 신념의 정당화

야고보서 2:14-26에서 야고보는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행함으로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떠든다고 하면서, 자신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 구절을 현대 인식론의 논의 가운데로 가져오면, 이미 형성한 신념에 대해 그 신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의 ‘인

지적인 접근(말로 보이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접근(행함으로 보이는 것)'³²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인식 주체의 '실천적 접근'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고 있다(22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대조는 일반적인 경우 인식의 확실성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비유로 이해되기 쉬우나, 마태복음 7:24-27의 본문을 보면, 단순한 인식의 확실성의 차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야기되는 인식의 질적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 7:24-27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야고보서 2:22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념은 실천을 통과하기 전과 후와는 그 인식론적인 상태(epistemic status)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참인 신념들이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의 '인지적인 접근'이 없이도 되지만(신빙론), 실천으로 신념이 참임을 보이는 '실천적인 접근'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³³. 다시 말하면, 어떤 참인 신념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정당화 과정이란, 첫째 그 신념을 인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여 형성해야 하고, 둘째 인식 주체의 순종 내지 실천으로 그 신념을 살아 내야(live out)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접근'에 대한 요구는 '인지적 접근'에 대한 요구 같이 불가능하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라, 가능

³² 신념이 일정한 규범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신념을 실천하고 그 신념이 참임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신념을 실천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시므로(롬 8:28),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신념이 참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³³ 이러한 실천적인 접근을 통한 신념의 정당화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신념이 '중요'할수록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며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신자(믿는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순종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식 정당성을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앞에서 말한 내재주의의 장점³⁴과 신빙론³⁵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념이 어떻게 ‘실천’을 통해 정당화되는가? 나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3) 실천을 통한 정당화의 예

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지켰을 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일, 늙어서도 이삭을 낳은 일 그리고 이스마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며,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신념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한 신념을 가졌을 뿐 아니라(히 11:18-19), 그 신념에 기해 순종하였다. 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신념이 확증되고 정당화되므로 지식이 되었다. 과거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정당화되어 지식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번의 순종으로 한층 더 확대되고 강화된 신념과 지식을 갖게 된 것이다(Schaeffer, 1982: 15-16).

³⁴ 인식 주체의 책임과 성실함을 요구한다는 사실.

³⁵ 신념의 정당성이 신념의 참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식 주체의 ‘인지적 접근’이라는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② 요한복음 4:43이하에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죽게 된 왕의 신하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아들도 예수님이 만나주 시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면서 혼자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병을 고치셨다”는 지식에 기초해서 “자신의 아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기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49절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제임스 사이어는 이 사람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다. “얼마나 진퇴양난인가? 계속해서 내려오시기를 청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위태롭게 하는 셈이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병 고치셨다”는 지식(정보)을 기초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에 기해 순종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신념이 확증되고,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었다. 5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순종하므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때에 자신의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확증하고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지식에 기초해 더 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53절에 아들이 살았던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임을 알고는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고 하는 데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Sire, 1990: 98-100).

③ 우리는 낭떠러지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허리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굵은 밧줄이 들려져 있다. 낭떠러지 밑바닥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사람의 거절을 상징하며, 밧줄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분 안에서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계속 위에 남아있는 한 안전하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 그 사람들로부터 겪게 될 거절의 고통 역시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낭떠러지지 밧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쪽에 서 있는 한 밧줄은 축 늘어져 있어 우리의 몸무게가 그 밧줄에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그 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신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한 위쪽으로부터 뛰어 내려 우리의 체중이 밧줄에 완전히 실려 그 밧줄이 팽팽하게 늘어나 그 밧줄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그 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의 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그 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신념을 확증하려면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려야 한다.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뛰어내려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그 분에게 달려 있다”는 신념은 정당화되어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Crabb, 1982: 51-54).

이제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는 정보에 근거해서 내지는 정보가 우리 인지기관을 촉발하여 일정한 신념을 갖게 되고, 그 신념이 참되다면³⁶,

³⁶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즉 참인 신념들만이 실천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 이유로 우리는 계시자와 창조자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 즉 참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분과 그 신념을 실천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주신 분 같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신론이야말로 인식 정당화 과정 모두, 즉 신념을 형성하고 그

실천을 통해 그 신념은 확증되고 정당화되어 지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신념이 실천을 통해 지식이 되는 과정은 여기서 그치는가?

3. 신념, 실천, 지식 간의 계속적인 순환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

신념이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는 과정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정한 정보를 통해 참인 신념을 형성한 경우 그 신념은 실천으로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고 우리는 또 다시 이 지식에 근거해 이전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된 신념을 가지게 되고, 이 신념은 다시 실천함으로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며, 다시 이 지식을 기초로 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으로 순환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지식이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라브리 학생 숙소 입구에는 아주 낡은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다. 학생 중 하나가 그 시간표(정보)에 근거해서 “오색 온천 가는 버스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온다”라는 신념 1을 형성했다고 하자. 이 학생은 버스 시간표가 아주 낡았기 때문에 옛날 버스 시간표를 게으른 간사들이 갱신(update)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신념이 맞는지 확인해 볼 생각으로 12시쯤 버스 정류장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정말로 버스가 오는 게 아닌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신념 1은 실천으로 정당화되어 지식 1이 되었고, 라브리에 돌아와서는 그 지식 1에 기초해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오색 온천 가는 버스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온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 모두를 설명하기 가장 우월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인지 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인지 기관을 만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라는 신념2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낡은 시간표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버스가 지금은 4시간마다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2시쯤 나가 보았는데, 이번에도 버스가 왔다. 이제 가지고 있던 신념2가 실천으로 정당화되어 지식2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지식2에 기초하여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오색 온천 가는 버스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온다”라는 신념3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낡은 시간표 때문에 “버스가 요즘에는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학생은 3시부터 정류장에 나가서 계속 있어 보았는데, 시간표대로 2시간 간격으로 왔다. 이제 과거의 신념3은 실천으로 정당화되어 지식3이 되었고, 이 학생은 이제 그 지식3에 기초하여 더 더욱 확고하게 “오색 온천 가는 버스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온다”라는 신념4를 갖게 되었다(그리고 라브리 간사들이 게으르지 않다는 신념도 추가적으로 갖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 역시 ‘참인’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앞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념이 참일 경우, 실천으로 정당화되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에 기초해서 더 확대 강화된 신념을 갖게 되며, 그 신념은 다시 실천하므로 정당화되어 확대, 강화된 지식이 되는 발전 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발전과정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정립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이 ‘참일 뿐 아니라 ‘중요한’ 신념들, 즉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실천으로 확증(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죄인이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다”,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는 명제를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 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믿으나 믿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실천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정립된 것 같지만 정립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신념과 지식, 순종과 지식에 관한 어거스틴, 웨퍼, 본훤퍼의 의견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순환을 계속할 것인가?’이지 ‘어디서 이 순환이 시작됐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이 순환이 시작되었던 간에 순환이 되지 않았다면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실천은 그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IV.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2: 무엇이 필요한가?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으로 순환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순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이 있어야 한다. 즉 기독교를 우리가 진리라고 부른다면 참된 신념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³⁷. 뿐만 아니라 참된 신념이 형성된 후에도 그 신념에서 실천으로, 또한 지식에서 다시 신념으로의 각각 이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형성

³⁷ 기억해야 할 것은 신념이 참되지 않는다면 실천으로도 확증 내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되고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즉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신념의 형성 내지 지식에서 신념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일정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지식에 기초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만큼의 신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가? 마태복음 21-6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미가서 5:2을 정확히 인용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그 지식은 신념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자 무어(G. E. Moore)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제를 인정하고 추론의 방식도 인정하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전제를 버리거나 추론의 타당성을 의심한다고 하였다(Moore shift).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세계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첫 번째 전제와 '세계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두 번째 전제로부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를 모두 믿고 추론의 방식도 동의한 사람이 논증을 통해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은 결론이 나오면, 논증을 재구성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신념을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위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의 시작은 없다'(Nash, 1988: 112-113).

더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도무지 그 사람은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는 고심한 끝

에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돼서 손가락은 바늘로 찌르면 물이 나온 디죠?” 그 환자는 “물론이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는 쾌재를 부르며, 바늘로 환자의 손을 찔렀다. 그러자 피가 줄줄 나왔다. 그러자 이 환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까지 나는 죽은 사람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아니라 물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Rietkerk, 1997: 19).

위의 정신병자의 예와 Moore shift는 우리의 인식이 심리적인 것 내지는 의지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18처럼 진리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의 결과의 하나가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 특히 지성과 의지가 왜곡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중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왜곡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futile),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darkened), 우준해지고(fool),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버렸다고 하고 있다(로마서 1:21-23). 플랜팅가는 이것을 죄의 인지적 효과(noetic effects of sin)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념이 죄로 말미암아 참되게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인지 기관이 오작동(malfunction)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예로 들자면, 칼빈과 로마서 1:20에서 나타난 바울의 전통에 따라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mind)가 있다’는 신념이나 ‘물리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신념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Plantinga, 2000: 206-216). 자연이나 세상에 관한 ‘일정한’ 지식에 관해서는 참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지만, 세상이나 자연에 관한 신념 중 중요한 것들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논리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참된 신념들의 체계라고 정의할 경우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은커녕, 정립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참인’ 신념들의 ‘형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으로 계속되는 순환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에서 신념으로의 순환이 죄의 인지적인 영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은 요원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참된 신념을 형성할 수도 없고, 지식에 기초해서 신념을 가질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참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요한복음 14:26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한다.

2. 신념에서 실천으로의 이행과 성령의 필요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 그 일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긍정하기는 힘든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알고도 행치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 특히 마태복음 7:24을 볼 때, 소크라테스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신념은 있으나 실천이 없어 결국 신념이 없다는 식의 역설적인 이론 구성을 했는데, 이 말은 신념에서 실천으로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즉 믿지만 실천으로 정당화되지 못해 믿는다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지성만 왜곡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 고장났다. 의지(will)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실행적인 기능(executive function)과 미워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의욕하는 감정적인 기능(affective function)을 한다. 따라서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참된 신념이 형성된 경우 그에 기초해서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며, 선을 바라고 의욕하며, 옳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Plantinga, 2000: 203-206). 그러나 의지의 타락으로 인해 사랑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할 것을 사랑하며, 선을 알지만 악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즉,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분을 의지해야 한다.

V. 결론

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에서 세계관이란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논리적 관련이 있어 보이는 중요한 신념들의 체계라고 정의하였고,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를 진리로 파악할 때, 기초적이건 비기초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논리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참된' 신념들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기독교 세계관의 메커니즘 I: 어떻게 작동되는가? 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작동하는 인지 기관을 통해 참된 신념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신념이 실천을 통해 확증되므로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지식에 기초해서 다시 믿고 또 이 신념에

기해 실천하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신념과 지식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천 없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천을 통한 순환이 없이는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고, 세계관이 정립된 것 같지만 정립된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기 위한 첫 단계인, 참된 신념의 형성이 쉽지 않고, 참된 신념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믿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신념→실천⇒지식→신념→실천⇒지식→신념……으로 계속되는 순환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독교 세계관의 메커니즘 II: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설명하였다.

참고 문헌

- 김기현 (1998), 『현대 인식론』, 서울: 민음사.
 성인경 (2004), 『세계관 전쟁』, 서울: 예영.
 양승훈 (1998), 『기독교 세계관』, 대구: CUP.
 양희송 (2002), “기독교 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 『복음과 상황』, 123(3), 57-63.
 이원석 (2002), “기독교 세계관, 멀리서 넓게 보기”, 『복음과 상황』, 124(4), 53-63.
 정정훈 (2002), “환상 속에 ‘기세’가 있다”, 『복음과 상황』, 123(3), 64-77.
 Alston, William P. (1993), “On knowing that we know”, in *Christian Perspectives on Religious Knowledge* ed, C. Stephen Evans & Merold Westphal, Michigan: Eerdmans.
 Bonhoeffer, Dietrich (1963),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 Macmillan.
 Clark, Kelly James (1990), *Return to Reason*, 이승구 옮김 (1998), 『이성애로의 복귀』, 서울: 여수문.
 Crabb, Lawrence (1982), *Marriage Builders*, 윤종석 옮김 (1990), 『결혼 건축가』, 서울: 두란노.

- Lehrer, Keith (1990), *Theory of Knowledge*, 한상기 옮김(1996), 『현대지식론』, 서울: 서광사.
- Middleton, Richard & Walsh, Brian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Illinois : IVP.
- Nash, Ronald H (1988), *Faith and Reason*, Michigan : Zondervan.
- Nash, Ronald H (1999), *Life's Ultimate Question*, Michigan : Zondervan.
- Plantinga, Alvin (1983), "Reason and belief in God", in *Faith and Rationality*, ed Aivin Plantinga and Nicholas Wolterstorff, Notre Dame London : Notre Dame Press.
- Plantinga, Alvin (2000), *Warranted Christian Belief*, Oxford : Oxford.
- Rietkerk, Wim (1997), *If only I Believe*, Cumbria : Solway.
- Rueggsegger, Ronald W. (1986), *Reflection on Francis Schaeffer*, Michigan : Zondervan.
- Schaeffer, Francis A. (1968), *The God who is there*, Illinois: Tyndal.
- Schaeffer, Francis A. (1982),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 Volume 1, Christian view of philosophical and culture*, Cumbria : Patemoster.
- Sire, James (1983), *Discipleship of the Mind*, 정옥배 옮김 (1994), 『지성의 체자도』, 서울: IVP.
- Sire, James (1976),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옮김 (198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Wolters, Albert (1985),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옮김(1992),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 Wolterstorff, Nicholas (1983), "Can Belief in God be Rational?" , in *Faith and Rationality*, ed Aivin Plantinga and Nicholas Wolterstorff, Notre Dame London : Notre Dame Press.
- Wolterstorff, Nicholas (1984),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Michigan: Eerdmans.
- Wood, W. Jay(1998), *Epistemology*, Illinois: IVP.

Abstract

The mechanism of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through living out

Jong-Chul Kim

A worldview is a set of related-looking beliefs concerning the answers to major questions which are 'who are we?', 'where are we?', 'what's wrong' and 'what's the remedy?' As Christianity is the system of truth, not just a religion, we can define a Christian worldview as a set of related true beliefs concerning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When we are exposed to certain conditions(or data), these trigger our belief forming system to produce beliefs. And in the case of being produced by cognitive faculties functioning properly, the beliefs become knowledge by being confirmed or justified through the obedience to the beliefs if they are true. The knowledge leads us to further beliefs which are at this time more grown and strengthened than before. Through the circulation among data(knowledge), belief and action, belief and knowledge keep progressing. As a Christian worldview is constituted of true beliefs, it can be established in this way.

However, considering noetic effects of sin, we know that we cannot always form true beliefs at the first time, the

obedience to the beliefs does not come automatically and knowledge does not always lead us to further beliefs. So we nee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o believe what is true, to obey what is believed and to believe further what is known to establish a Christian worldview.

Key Words: worldview, Christian worldview, beliefs